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6년 11월 23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23일(수) 오전 6시 부터 보도)

배포일시	2016. 11. 22. (화)	담당부서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 산업부 미주통상과
담당과장	전윤종 과장(044-203-5620) 김기준 과장(044-203-5650)	담 당 자	김태우 서기관(044-203-5651) 김준겸 사무관(044-203-5622)

미국 새정부 출범에 맞춰 대미(對美) 통상 대응에 민관 통상역량 총결집

-「대미통상협의회」 출범, 정부-민간-연구기관 공동으로 적극 대응키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23일(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무역지원기관, 민·관 연구기관 및 미국 통상전문가로 구성한 **'대미(對美) 통상협의회'(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 공동 주관) 제1차 회의를 열었다.**

○ 미국 트럼프 **새정부의 통상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 민간 차원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 **'대미(對美) 통상협의회'**는 앞으로 **대미통상 대책, 양국간 신규 협력방안 및 아웃리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게 될 핵심적인 **민관 공동 거버넌스**로서, 현행 통상산업포럼 산하 대미통상 분과회의를 확대 개편하고, 지난 주(11.14일) '대미통상 실무작업반회의*'를 거쳐, 출범했다.

* 11.14일,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 출범(2차관 주재, 정부부처, 경제단체, 연구기관, 전문가 참석)

<제1차 대미 통상 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16.11.23(수) 08:00~10:00, 무역협회

○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무역협회장 (공동위원장),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부회장, 업종별 협·단체 회장, 코트라(KOTRA)·무역보험공사 사장, 수출입은행장, 민·관 연구기관장

○ **발표안건** : 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대선이후 통상정책 방향
② **(산업연구원)** 미(美) 신(新)정부 통상정책이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③ **(무역협회) 대미(對美)** 민간협력 계획

□ 주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상 당시 **조화로운 상호 이익균형**을 이루었으며, 발효 이후 **교역·투자** 분야에서 **호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호 번영의 틀**" 이라고 전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에 **수입규제협의회** 및 **현지 대응반 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으며, 향후 **대미(對美) 보호무역조치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겠다. 미국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인프라 투자**, 자동차·철강 등 **전통 제조업 육성**, **에너지 개발** 등 새 **정부**의 **역점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지금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호혜적 성과**에 대한 대미(對美) **현장 지원 활동(아웃리치)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미 새**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보다 더 **체계적인 아웃리치 전략**을 마련·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새**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이 **보호무역 기조 심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 **무역제재**조치 **대비**, **환율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산업연구원(KIET)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 중심주의**와 **경제적 실리주의**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일반기계 등의 대미(對美) **주요 수출 품목에 미칠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이 병존**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다.

□ 이어, **무역협회**는 미국 **신정부 출범('17.1.20)을 전후한 시기**가 미국과의 양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골든타임'이라며**

○ 특히, 주요 기업 및 입각 가능 재계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무역투자 사절단 파견 등 민간 차원의 대미(對美) **현장지원활동(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장관은**

○ "보호무역을 주장해 온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우리 **수출과 통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면 오히려 **우리**의 **대외경쟁력**을 한 단계 **제고**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므로 오늘 출범한 대미(對美)**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업계** 및 **연구기관**들이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 붙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말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김태우 서기관(☎044-203-56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對美**통상 민관 공동 대응체계 (안)**

< 對美 통상협의회 운영 체계 >

對美 통상협의회

(공동위원장) 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

간사
산업부 통상차관보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무역 지원기관**	**민·관 연구기관**	**통상 전문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전자, 전기, 기계 협회장 및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사장	KDI, KIET, KIEP, 농촌경제연구원, 삼성·LG·SK·현대·포스코 경제연구소장	통상교섭민간 자문위원

◇ **(기능)** ①對美 통상대책 및 협력방안 수립, ②아웃리치 전략 마련, ③對美 민관협력 추진

< 對美 통상 실무작업반 운영 체계 >

對美 통상 실무작업반

(반장) 산업부 2차관

간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관계 부처
기재·외교·농림·해수부, 금융위

업계 (경제단체)	**무역 지원기관**	**민·관 연구기관**	**통상 전문가**
무역협회, 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본부장	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KDI, KIET, KIEP, 삼성·LG·SK·현대·포스코 경제연구소 부원장	통상교섭민간 자문위원

◇ **(기능)** ①시나리오별 세부대책 마련, ②아웃리치 현황 점검, ③업종별 협력방안 제시

붙임2 對美 **통상 협의회 구성 (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 형 환**	**공동위원장**
경제단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 인 호**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 동 근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송 재 희	-
주요 업종별 협·단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회장	정 지 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	박 성 욱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	허 수 영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사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김 용 근	-
	한국철강협회	회장	권 오 준	포스코 대표이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성 기 학	영원 아웃도어 대표이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권 오 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장 세 창	파워맥스 대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 진 필	-
	해외건설협회	회장	박 기 풍	-
무역지원기관	KOTRA	사장	김 재 홍	-
	수출입은행	행장	이 덕 훈	-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 영 학	-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 준 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 정 택	-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 병 규	-
	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 창 길	-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차 문 중	-
	LG경제연구원	원장	김 주 형	-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황 규 호	-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곽 창 호	-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강 인 수	-
통상전문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中 수시 참석			

붙임3 **장관 모두말씀**

1 인사말씀 및 美 대선 이후 통상환경

민관합동 對美통상협의회의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대표, 무역지원 공공기관과
주요 연구기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를 함께 준비해 주신
무역협회 김인호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
향후 통상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나,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주의를 주장해온 만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우려되기는 하나,

* 트럼프 당선자 후보시절 주요 공약: ① TPP탈퇴, ② NAFTA 재협상, ③ 對中 환율조작국 지정 및 관세(45%) 부과, ④ 對멕시코 상계관세 부과 등

美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균형, 美 업계의
요구 등을 고려해 보호주의적 요소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우리정부 대응 현황

이에 정부는 미국 新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정중동(靜中動)의 자세로 착실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직후 개최된 '한미 재계회의'에서
美 경제계와의 상호 신뢰를 재확인하고
한-미 FTA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였으며,

지난주에는 트럼프 인수위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국 간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해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중미 6개국과의 FTA를 실질 타결함으로써
NAFTA 재협상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미국시장에
우리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제 3의 길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한-미간 현안에 대한 우리 업계와 민·관 씽크탱크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대응체계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3 對美통상협의회 출범 의의 및 중점 과제

특히, 오늘 출범하는 '對美통상협의회'는
향후 對美 통상 대책과 양국간 신규 협력방안,
아웃리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게 될
핵심적인 거버넌스입니다.

저는 對美통상협의회가 앞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미 FTA를 주요 축으로 한 양국 간 교역관계에 대한
일각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그 win-win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어려운 협상 끝에 체결된 한-미 FTA는
협상 당시부터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이루었으며,
지난 5년간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상품교역에서 연간 258억불의 흑자를 시현 중이며
美 측은 서비스 분야에서 144억불의 흑자를 거두고 있는데,
그 간 우리 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가 호조였던 점,
미국의 對 한국 수출이 대표적인 FTA 수혜 품목인
농산물, 자동차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상호 조화로운 이익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이후 우리의 對美 투자가 2배 이상 늘고
미국 현지에서 1만명 이상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입각해
한미 FTA에 대한 美측의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미국 현지 기업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해 주신 업계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해주시길 바라며,
한-미 FTA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논리적인 근거 제공을 위한
각 연구기관의 참여도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간 美 측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규정' 확대 적용 등
보호주의 강화 추세에 '수입규제 협의회', '현지대응반'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해 왔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의 파고가 더 거세질
가능성에 대비해 對美통상협의회를 통해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더욱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향후 미국 등의 추가적인 보호무역조치가 실시될 경우
기업들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정부도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양자·다자간 통상협의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시 국제규범에 입각해 WTO 제소 등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인 1조달러 인프라 투자와
전통 제조업 강화 전략, 그리고 내년부터 개시되는
年 280만톤 규모의 셰일가스 도입 등을 계기로
새로운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양국간 새로운 win-win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저희 對美통상협의회의 주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양국 각각의 장점을 살린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업계의 기업가 정신과
연구기관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협의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아웃리치는 물론
업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對美 채널 구축 및
효과적인 아웃리치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 간 FTA 이행위와 장관급 회담, 한미 재계회의, AMCHAM간담회 등
민·관 차원에서 다양한 아웃리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새정부 출범('17.1.20)까지 남은 약 두 달의 기간이
향후 對美통상 환경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보다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당선자가
새 정부에 재계 인사를 대거 참여시킬 가능성도 있어
경제단체와 협회, 현지 진출 기업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민간에서도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조성을 위한
아웃리치 활동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4 향후 계획 및 마무리 말씀

정부는 앞으로 對美통상협의회 논의 결과와
업계, 연구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발생가능한 對美 통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국 新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종목이자
우리 나라의 국민 스포츠 이기도한 야구에는
'위기 뒤 기회가 온다'는 금언(金言)이 있습니다.

실점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하고 나면,
곧바로 그에 상응하는 좋은 득점 기회가 생기곤 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인 교역 위축과
보호무역을 주장해 온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우리 수출과 통상이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면
오히려 우리의 대외 경쟁력을 한 단계 제고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좋은 시합을 위해선 팀원 전체가 혼연 일체가 되어
준비된 전술을 착실히 수행해야 하듯이

정부와 업계, 그리고 핵심 연구기관들이
오늘 출범한 對美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긴밀히
공조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